아들에게 전화를 받은 6월 15일 수요일 새벽 3시 32분부터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AM 03:32

저는 집은 거제도이지만 직장이 김해에 있어 김해 원룸에서 생활하며 주말에 거제도 집에 다니러 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김해 원룸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몇시인 지도 잘 몰랐지만 서울에 있는 아들 전화라서 덜컥 긴장이 되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하며 오열을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졌구나 생각되어 우선 아들을 달랠 수 밖에 없어 계속 진정시키려 심호흡 해라, 무슨 일인 지 아빠한테 다 얘기해라, 아빠가 도와줄테니 우선 진정부터 하고 찬찬히 아빠한테 얘기해 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한 십분 넘도록 아들은 오열과 아빠만 외치면서 호흡 곤란으로 한마디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오열할 때 저는 혹시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괜찮다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우선 얘기하고 사람만 안 죽였으면 아빠가 모두 해결해 줄테니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아빠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 달라고 십 여분을 더 달랬습니다.

그 이후 조금은 호흡이 돌와 왔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들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제대로 말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오열 반 얘기 반으로 있었던 일을 두서 없이 말했습니다. 울면서 흥분된 상태로 얘기해서 잘 알아 듣지 못했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 주에 학교앞 커피숍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 여사장이고 새벽에 전화가 와서 울면서 자기집에 좀 와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여사장 집에 갔는데 안아달라 자고가라 계속 그래서 결국 옷 벗고 성관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들이 닥쳐서 여사장과 제 아들을 마구 폭행했고 아들에게 니 인생 끝장내 주겠다고 겁을 주면서 학교에 다 알릴 거고 부모님 전화번호 대라고 협박했고 또 물건도 던지고 부엌에 칼 가지러 가면서 칼로 찔러 죽이니 병으로 쳐 죽이니 하며 아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서 나와서 제게 전화 한 거라고 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고 오열 하였습니다. 두서 없는 얘기였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터졌는 지는 제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을 진정시키면서 일단 괜찮으니까 지금 택시 타고 기숙사로 가서 짐을 챙겨서 터미널로 가서 아빠가 있는 김해로 우선 내려 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하며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극도의 공포감으로 제발 전화 끊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저와 통화하면서 택시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갔습니다.

AM 05:00

그 이후로 계속 저와 통화를 했다 끊었다 했다 끊었다 하며 택시를 타고 기숙사에서 남부터미널로 갔는데 남부터미널에는 김해, 부산 버스가 아침 시간에 없어 다시 고속터미널로 택시를 타고 가서 비로소 아침 6시 40분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아들이 버스에 탄 것까지 확인하고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였고 회사에는 개인사정이 좀 있어서 나가 봐야겠다고 둘러대며 아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10시 30분 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11시 5분 쯤 도착했고 저는 우선 아들을 진정시키며 차에 태워 제가 거주하는 김해 원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선 샤워부터 시키고 뭘 좀 먹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며 이불을 덮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PM 12:26

그러던 중 여사장 휴대폰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 왔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해서 일단은 그냥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였는데 한 두 번 더 전화가 왔고 전화를 안 받으니 이번에는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여사장 폰을 이용하여 카톡을 보내 학교 게시판에 글 올리기 전에 연락하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때문에 이혼하러 간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고 연락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빠가 일단 대화를 해 보겠다고 하며 여사장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장이 받지 않고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밝히고 지금은 아들이 많이 불안해 해서 진정시키고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차분히 진정시키면서, 아빠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차분히 아빠한테 모든 일들을 얘기해 보라고 달랬습니다.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얘기했는데 주된 내용은 서울에서 전화로 얘기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은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는 오빠로만 알고 있던 그 남자가 들이 닥쳐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얘기할 때 하는 말이 완전히 이혼을 해야 이혼한 거지 아직은 부부사이인데 말이야 하면서 아들을 겁박했다고 했습니다. 아는 오빠라고 소개 받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부부 사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 세운거지요.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서도 계속 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나중에 아들이 조금 더 진정이 되면 다시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하고 일단 그 아는 오빠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 봐야겠지만 우선 아들 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럼 그러라고 했고 내일 올라가는 시간 등은 내가 회사에 연락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엄마가 알면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있는 김해로 내려 오라고 하긴 했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아들에게 잘 얘기하여 엄마도 알아야 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수습해 나가야 하니 지금 이 길로 거제도 집으로 가자고 했고 아들도 그러자고 해서 아들을 태워서 거제도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화로 대략의 얘기는 아이 엄마에게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생각한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평일에 집으로 온다면 많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전화로 얘기하였습니다.

거제도 집에 도착하여 아들에게 밥을 먹여 보았지만 한 술 정도 뜨더니 넘길 수가 없고 토할 것 같이 속이 울렁 거린다고 해서 결국 밥도 못 먹이고 침대에 재웠습니다. 약 한 시간 정도 누워있던 아들이 일어 났길래 아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뭔가 일을 수습하려면 찬찬히 아빠한테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얘기해줘야 수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이제는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빠한테 얘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기억을 더듬고 짜내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 듣고 나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알바 첫날부터 여사장이 아들에게 꼬득이면서 강제로 뽀뽀도 하고 저녁에 밥 사주면서 예전에 자기가 술집에 다녔고 술집 마담 출신이고, 또 그 남자는 커피숍 차리는데 돈 좀 보태면서 도와준 아는 오빠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니가 알바생 꼬시지 못하게 알바생한테 자기를 남편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말을 여사장이 아들에게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5일 일한 알바생을 새벽 1시에 울면서 전화하여 집으로 와달라고 꼬득여서 마지 못해 아들이 주소 찍어준 곳으로 찾아갔는데 같이 술 마시자며 계속 안아 달라, 자고 가라 등 신체 접촉을 하면서 유혹을 했고 두 세 차례 뿌리치면서 택시 타고 기숙사 가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뿌리 치지 못하고 안방 침대로 손을 이끌려 가서 그 여사장이 자기 하의를 벗으면서 아들 옷도 벗기려 했고 너무 지금 하고 싶다고 하며 달겨 들었고 아들은 그기서 무너져서 하의만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중에 그 아는 오빠가 현관 키를 누르고 들이 닥쳐서 난리가 났고 죽이니 살리니 인생을 끝장내니 학교에 다 알리니 하며 아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며 결국 마지막에는 쫒아 내었다 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또 그 다음에 지난 밤부터 여사장과 아는 오빠가 보낸 몇몇 문자와 카톡을 유심히 확인해 보니 뭔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심이 깊게 들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사이라면 왜 처음부터 부부사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알바생 꼬시지 못하게 알바생에게 남편이라고 얘기하라는 말을 하며, 또 문자와 카톡에는 유독 아들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듯이 보냈는데 이것 또한 뭔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도한 것 같은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미현인 했다는 데 넌 안했다고? 산부인과 갈까?" "다 걸렸어 사실대로 얘기하자" 등.

아내의 불륜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남편이 보낸 문자로 보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계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상적인 유부녀가 남편이 뻔히 들어 올 줄 아는 집에 남자를 끌어 들여 외도를 계획하고 또 남편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현관키 누르면서 들이 닥치고. 아들에게 인생을 끝장내니 학교 게시판에 글 올리니 부모님 연락처 대라느니 칼로 찔러 죽인다느니 병으로 죽인다느니 하고 지금 너 때문에 이혼하러 간다느니 하며 극도로 아들을 몰아 부쳐 반 쯤 얼이 빠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정작 아버지와 전화할 때는 너무나 침착하고 계산적인 말투에 저는 더욱 의심이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덫을 놓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합의금헌터 들에게 걸려 든게 아닌 가 하는 의구심도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짜고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앞길이 구만리 같은 자식을 위해 지방의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고 해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사장과 남편이라는 남자 둘이서 짜고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 아내와 불륜을 하게 하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덮쳐 아들 인생을 끝장내겠다고 협박하면 아들 부모가 아들을 살리려고 합의금을 준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PM 9:46

그런 생각이 들자 서울 올라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 휴대폰으로 여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 준비를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난 밤에 여사장 휴대폰으로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갖고 있을 거고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여 여사장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사장이 직접 받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밝히니 그 아는 오빠를 바꿔 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제 의구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젊은 대학생과 집에서 외도를 하다가 남편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유부녀가 그 대학생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라고 하니 남편에게 누구누구 아버지래 하면서 전화를 바꿔 주는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남편 전화 바꿔주는 일상적인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둘 사이가 난리가 나도 단단히 났겠다 생각도 했고 당연히 여사장 휴대폰을 그 아는 오빠가 가지고 있겠거니 했지만 둘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노리고 덫을 놓은 공갈단이나 작전 세력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약 7분동안의 녹취를 들으시면 됩니다만 대략 요약하면, 우리 아들에게 다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아침에 들은 얘기랑 많이 다른 것 같다. 오히려 미성년자인 우리애가 여사장 꼬득임에 넘어 가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러면 당신들 둘 다 형사 고소하겠다 했고 그 쪽에서는 여사장이 피해자고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 여사장을 건드리려다가 남편이 들어와서 들켰다 라는 식으로 얘기 했고 그들도 그럼 법대로 하자 하면서 전화는 끊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 이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으로 각본을 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금을 챙겨보겠다는 각본이 아니고 아예 우리 아들을 성폭력 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각본인 것 같은 생각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PM 10:04

그러고 나서 밤 10시쯤 여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 제가 OO이한테 당했어도 남편한테는 사회초년생이니까 덮어주자고하면서까지 이혼당하게생겼는데 칼을들고 병을들어요? 그런적없어요 증거있나요? 병원가죠 그 팬티 그데로있으니 날 나쁜년만들려고하니 저도 더 이상 봐줄수가 없네요.’***

이 문자를 받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상간남이 아니고 성폭력 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 아들에게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나 카톡을 계속 그런 늬앙스로 보냈고, 또 남편이 들이닥쳐서 죽이니 살리니 할 때도 혹시 우리 아들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한다면 그 부분을 남겨놓기 위해 미리 녹음을 준비하여 실행했다는 것을. 아마도 나중에 있을 소송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PM 4:21

어제 여사장에게 온 문자에 아무런 댓구도 없으면 마치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까봐 다시 문자 회신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 누가 누구한테 당해요? 이것보세요.***

***당신이 새벽 1시에 울면서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하고 거절 못하고 찾아간 우리 아들이 몇 번이나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다고 했는데도 순진한 미성년자 유혹하고 꼬득여서 결국은 성관계 하려고 하다가 당신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들이 닥쳐서 우리 애를 사색에 질리게 겁박하고 협박하여 정신이 반 쯤 나간 우리 아들을 집으로 내려 오라고 한 게 어제 일이었는데,***

***누가 누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함정을 파서 빠뜨렸든, 당신의 순간적인 욕정으로 우리 아들을 꼬득였든 간에 고의로 뭔가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엄중히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멈추세요.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 아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미성년자인 우리 아들은 이미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애꿎은 우리 아들을 물고 늘어지는 지 관심 없습니다만 만약 기어코 당신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더 일을 키워서 우리 아들 인생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면 그 땐 내가 피하지 않고 당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카페 사장이 미성년자 알바생을 대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당신을 형사고소 할 것이며 미성년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한 협박죄로 당신 오빠를 형사고소 할 것이며 또 당신들이 고의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당신들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무고죄와 사기 공갈죄로 형사 고소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엄중히 처벌하는 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정서적으로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우리 아들 인생과 명예가 달린 일이라서 당신들이 싸움을 걸어 오면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켜낼 겁니다. 나는 미성년자인 우리 아들의 법적보호자이기 전에 아버지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여기서 멈추세요.***

***난 지금부터 정황증거가 되는 모든 카톡, 문자, 전화 등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시간대 별로 정리해 놓을 겁니다. 필요하면 우리 아들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여타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상 증거들을 차분히 수집하고 당신들의 거짓 진술을 밝혀줄 수 있는 티끌만한 증거라고 있으면 찾아서 모으고 수집하여 당신들의 성폭력 무고에 대비할 것입니다.***

***난 당신들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엮인 당신들과의 악연을 여기서 끝냈으면 하는 마음뿐이니 여기서 끝냅시다. ‘***

PM 5:52

노원경찰서 박은성 수사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사장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다 우리 아들이 부인을 하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하셨고 그 여사장은 우리 아들이나 제가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게 겁난다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님은 저에게 절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하였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거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완전 악질에게 우리 아들이 100 프로 덫에 걸린 거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도 하고 해서 밝혀낼거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AM 10:49

우리 아들이 자기 집을 알고 있어서 무슨 해코지라도 할 지 무섭다면서 어제 경찰서에서 마치 피해자 행세하면서 신변보호 요청했다는 여사장이 버젓이 오늘 아침에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꾸 미성년자 라고하는데 우리나라법으로 만16세이상은 문제가되지않는다고 어제 형사한테 직접들었어요 아들이 집가겠다고했다고요? 참나... 누나에대한 로망이있고 누나는 우리누나랑 나이가비슷해보인다면서 여자친구로좋다고 흑심까지 품었던건 못들었나봐요? 팔은 안으로굽는다더니만 너무하시네요 미성년자 그게가능한지 직접물어보세요 저도 신변보호요청했구 문자 통화녹음 전화하셔서 죄송하다고하시다가 말바뀐부분 다 있구요 OO이가 무릎꿇고 제남편한테 저 잘때 시도만했다고 잘못했다고한내용 다행이 녹음되있네요 하늘이살렸네요 술에 떡이된사람 건든 본인 아들 개속 지켜주세요 형사가 문자통화 다 증거로 갖고있으라던데 자꾸 이런문자보내시면 어쩔수가없네요’***

그리고 아는 오빠라는 사람도 아래와 같은 문자 두개를 같이 보냈습니다.

‘***남편입니다***

***당신은 와이프가 자고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 아는 남자 동생이 내 눈앞에서 팬티 바지를 입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와이프는 옷을 분명히 다 입고 있었고. 댁 아들만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내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연실 남발 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저도 진정하고 사건과 정확한 내막이 궁금하여 OO이에게 연락한겁니다***

***그러던중 아버님이 연락을 주신거고요. 제 와이프가 유혹을 했다면 어째서 OO이만 옷을 벗고 있었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OO이보다. 나이많은 아들도 있고. 처벌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라는걸 알아두셨음 합니다.’***

***‘지금도 약간 흥분하여 두서없이 보낸거 같습니다. 감추고 감싸려고만 하지마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AM 10:51

아들 휴대폰으로 여사장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신변보호 신청했고 수사관에게 우리 더러 해코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연달아서 같이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하고 그랬네요. 문자를 읽어보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덫을 놓았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자기들 말이 맞다면 유부녀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남자 대학생이 성범죄 저지르려고 하다가 그 현장을 남편한테 걸린 상황이라는 건데 남편이 눈이 뒤집어 져서 죽이니 살리니 할 때 하늘이 살려서 다행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사장이 했는 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했는 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녹음을 할 정신이 있는 건지 둘 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은 눈알이 뒤집혀서 물불 안 가리게 되고 와이프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지 맨붕이 올 것 같은데 누가 그 상황에서 녹음 버튼을 누를 정도로 냉정했는 지 궁금했습니다.

미리 각본을 짠 것 같은 정황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에 유독 자기 와이프는 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한테 듣기로 여사장이 자기 하의를 벗으면서 아들 하의도 벗기려 했고 결국 둘이서 하의만 벗은 채로 하려다가 남자가 들이 닥치니 여사장은 옷을 얼른 올리고 자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 처음부터 그렇게 연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유혹을 했다면 어째서 OO이만 옷을 벗고 있었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들을 꼬득여서 할 때 하의만 벗었는 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회유하는 듯이 말하네요. 마지못해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문자로 답하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 가는 대목은 어떻게 그렇게 딱 상황에 맞춰 남편이 들이 닥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같이 술마실 때 들어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누워 있었을 때 들어 올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기막힌 타이밍과 시간에 딱 맞춰 들이 닥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약 3시 경으로 들었는데 2시 30분에 들어 왔을 수도 있고 4시에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 닥치는 것은 각본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고 또 새벽 3시에 우연히 들어 온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또 든 의심은 여사장은 왜 굳이 아들과 술 마시다가 아들 폰으로 그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 입니다. 새벽 2시 17분에 전화해서 통화했고 그 이후 2시 32분까지 대여섯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차단된 것이 아들 폰 내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종의 약속된 시간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새벽 3시로 각본을 짜고 여사장이 시간에 맞춰 안방으로 가서 자기 옷을 벗으면서 아들 옷도 벗겼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그 두사람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PM 7:28

노원경찰서 박은성 수사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퇴근 무렵에 문의할 게 있어 제가 수사관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중이라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고 지금 전화 하신 거라고.

저는 우리 아들 진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CCTV 확보 등을 피의자 진술 전이라도 부탁 드릴 수 있는 지 문의하였고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상호, 주소, 시간 등을 특정하여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주말까지 보내주면 월요일 출근하여 챙겨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맙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PM 8:09

다시 노원경찰서 박은성 수사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한 가지 물어 볼 게 있다고 하며 아들이 그 사건 당일 실제 삽입이 있었다고 했는지 물었고 저는 삽입은 하지 않았고 하의만 벗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들이 닥쳤다고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은 아들과 직접 통화하고 싶은데 괜찮은 지 물었고 불안 증세를 보이며 계속 누워 있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좀 지나서 다음주 중에는 한 번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